

뉴라텍/NEWRACOM 소식 (2019년 6월)

2019. 6. 28.

◇ 뉴라텍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 2019』 전시회 참가 통해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

- 세계 최초 장거리 와이파이 응용제품(4종) 시연 및 32개 기업 대상 제품 판매 협상 진행

수 백 종의 사물인터넷(IoT)용 디바이스의 세계 최대 제조국가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뉴라텍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뉴라텍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중 하나인



26-28 June 2019 · 2019년6월26-2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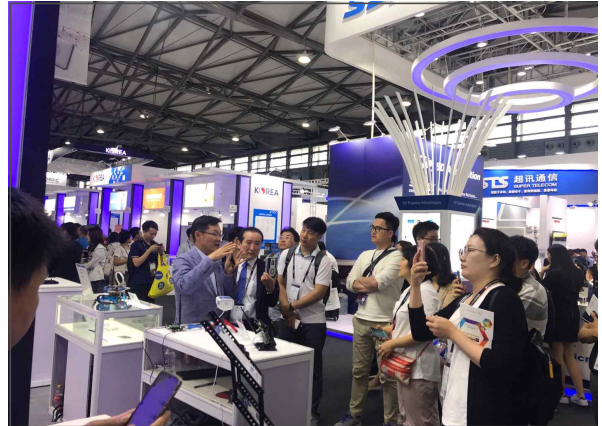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 2019』에 참가하여, 중국 및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IoT용 와이파이 칩셋의 글로벌 공급자로서의 시장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심기업 대상 제품 판매 협상에 들어감.

- 뉴라텍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1) 헤일로우(HaLow)라고 불리는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과 2) 저전력·초저가 와이파이4 칩셋 등 IoT용 2종 칩셋에 대하여 중국 시장 대상 중점 홍보함.
- 특히, 뉴라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제품명 : NRC7292)의 경우, 다양한 IoT 분야 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보안카메라, 감지센서, 도어락을 목표시장으로 한 실제 응용시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전시회에 참석한 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냄. 이번에 선보인 장거리 와이파이 응용시제품은 ▲ 스마트 도어락 ▲ 보안카메라가 부착된 무선조종(RC) 자동 ▲ CCTV ▲ 온도·습도·위치 정보를 감지하는 IoT센서 등 4종으로 모두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기존 제품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전시회 참석자 대상 직접 시연함. 또한 세계 최초의 장거리 와이파이용 AP (공유기) 시제품도 전시함으로써 본격적 시장 확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음을 대외에 과시
- 뉴라텍 부스에 방문한 기업 및 관계자는 총 100여개 기업, 530여명에 이르고, 이중 화웨이, 차이나 유니콤, 이메지네이션(영국), 사이언스그린(이란) 등 32개 기업의 경우 당사 제품 도입 또는 구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샘플 칩셋 및 보드를 통한 기술지원, 구매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이들 기업을 통해 예상되는 칩셋 공급 물량은 미국 달러기준 약 37백만 달러(원화 기준 약 43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뉴라텍은 지난해 하반기 장거리 와이파이 제품 출시 후, 현재 국내외 100여 곳의 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유틸리티(전력·수도·가스)사업자와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칩셋 공급계약 체결, 매출액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뉴라텍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전시회에 참가 중으로, '18년 1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K-Global@China』를 시작으로 지난 2월과 5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바르셀로나 2019』와 일본 도쿄에서 열린 『Wireless(무선통신) Japan 2019』에 각각 참가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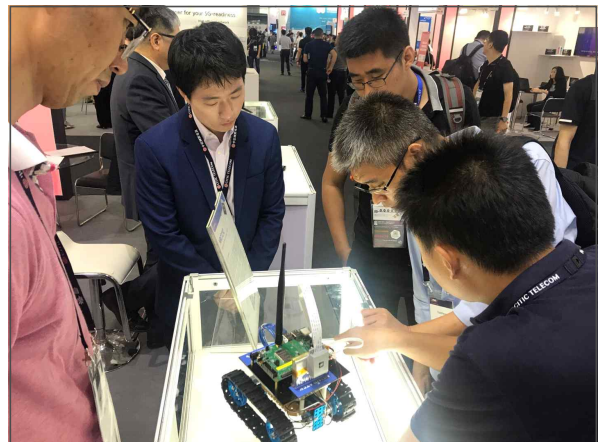
[사진1] 뉴라텍이 MWC 상하이 전시회에 출품한 세계 최초 장거리 와이파이 응용제품들



[사진2] 뉴라텍 관계자가 전시부스 방문객 대상 제품 시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3] 장거리 와이파이 제품에 관심 있는 기업 대상 제품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4] 장거리 와이파이 기반 응용제품인 무선조정 자동차를 한 방문객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